

9차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1. 개요 - 승객추락방지의무의 개념

1.1 승객추락방지의무의 정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은 '승객'이며, 사람의 운송에 제공되는 모든 자동차는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2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성립요건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의 성립요건은 운전자 과실, 피해자적 요건, 자동차적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가. 운전자 과실

구분	내 용
적용사례	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발차한 행위
예외	차량 정차 중 피해의 과실사고와 차량 뒤 적재함에서의 추락사고의 경우

나. 피해자적 요건

구분	내 용
적용사례	탑승객이 승하차중 개문된 상태로 발차하여 승객이 추락,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	적재되었던 화물이 추락하여 발생한 경우

다. 자동차적 요건

구분	내용
적용사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거의 대부분 승합차에 적용)
예외	이륜차, 자전거 등은 제외



1.3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 ①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그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②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기 전에 출발하다가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③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의 낙상사고

2. 대표 사고유형

(1) 택시 승차 중 차가 움직여 부상 시, 형사처벌 가능한가?

- 택시에서 추락한 상황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승객이 다친 경우이므로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한다.

(2) 버스 하차 시 옷이 문에 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해 부상 시,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가?

- 승객의 두 발이 다 땅에 내려선 후에 문을 닫다가 옷이 끼여 일어난 사고는 법에서 정하는 추락의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사고에 해당한다. 승객이 완전히 타지 않았거나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져 다친 경우가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에 해당한다.

3. 사례

(1) 골프장 카트 좌회전 중 승객이 추락한 경우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하는가?

- 골프장 카트도 도로교통법상의 '차마'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동차이기에 카트운행 중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에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2) 동승자가 고속도로에서 무단하차 직후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다른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운전자는 동승자가 내린 후 신속히 정차하여 동승자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 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한다(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노2492 판결).

4. Q&A

화물차 인부가 적재함에서 추락 시,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가능한가?

-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한 인부에 불과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승객으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승객추락방지의무는 운송에 사용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5. 안전가이드 Tip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뒷좌석에 탑승하였을 경우는 차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③ 어린이의 경우 주행 중 차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따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④ 운전자는 항상 출발 직전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⑤ 차량의 특성상 문이 없는 경우라면 차량이 회전할 경우 미리 승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승객의 안전을 승객 스스로의 책임으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 차량의 이동시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 ⑦ 버스의 승하차시 승객에 밀려 넘어져 부상자 발생시에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한다.